

## 장백의 관계지향성으로 본 <장백전>

— 경관 28장본을 중심으로 —

황지현\*

<차 례>

1. 서론
2.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장백의 정체성
3. 장백의 자기실현과 온전한 자기 완성
4. <장백전> 경관 28장본의 주제의식 및 결론

### <국문초록>

초기 영웅소설 가운데 하나인 <장백전>은 원말명초 왕조 교체기를 배경으로 천자의 자리에 도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장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본고는 장백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나간다는 점에서 관계 지향적 인물로 보았다. 그는 가족과 분리된 후 심각한 내적 위기를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었다. 천자위 획득을 통한 사회적 자기의 실현과 가족 회복을 통한 온전한 자기 되기는 장백에게 있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저에 관계 지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말부 장백의 선택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백전>의 서사는 난세를 만나 능력을 펼치는 군웅들의 활약과 가족 지향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이름을 길이 남기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과 유대감으로 묶인 관계 속에 수용되기를 바라는 원초적인 욕망이 경쟁적으로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상충할 수 있는 두 축을 관계 지향성을 지닌 장백을 통해 긴밀하게 엮은 것이 이 작품의 성과이다.

장백전, 영웅소설, 관계 지향, 자기상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1. 서론

초기 영웅소설 가운데 하나인 <장백전>은 원말명초(元末明初) 왕조 교체기를 다루면서 실존 인물 주원장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천자의 자리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장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sup>1)</sup> 따라서 천명(天命)을 받지 못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유와 우위를 점하고도 천하를 양보한다는 결말을 놓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졌다.<sup>2)</sup>

장백의 창업(創業) 행보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sup>3)</sup> 그만큼 이 소설이 사회 제문제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sup>4)</sup> 한편 옥새를 포기한 것은 천명에 굴복한 인간적 욕망의 측면<sup>5)</sup>에서 살피는가 하면 서사적 기능으로써 혈맹을 통한 화해<sup>6)</sup>로 읽기도 하였다. 애초에 창업은 핵심이 아니며 가족의 이별과 재회가 주골자라는

1) <장백전>은 일본 통신사 소전기오랑(小田畿五郎)이 1794년(정조 18년)에 작성한 『상서기문(象胥記聞)』에 제명이 언급되어 있어 창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대석이 밝힌 바 있다.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22~23쪽)

2) 그 과정에서 지엄한 천명에 대한 인식이나 천명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 영웅을 부각시켰다는 관점, 청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 등의 측면에서 장백과 주원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성래, 『영웅소설과 사회 : <장백전>을 중심으로』, 『원우론집』 12, 연세대학교, 1984; 김경숙, 『장백전 연구』, 『목원어문학』 11,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92; 정상진,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구조와 두 가지 문제』, 『牛岩斯黎』 4,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김용기, 『<장백전>에 나타난 천관님 고찰』, 『어문논집』 33, 중앙어문학회, 2005; 정인혁, 『월령적 사유와 <장백전>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 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 김경숙(1992), 위의 논문, 5~6쪽.

4) 논자로 서대석, 임성래, 김경숙, 심재숙, 김용기, 정인혁, 윤보윤 등이 있다.

5) 김용기(2005), 위의 논문, 77쪽.

6) 김대근, 『초기 창작 영웅소설의 형성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6~80쪽.

주장도 제기되었다.<sup>7)</sup>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서사를 추동하는 장백의 선택이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간적 욕망을 천명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설정함으로써 그 실체를 모호하게 만든 것 또한 문제적이다.<sup>8)</sup> 이는 근본적으로 장백의 천자되기와 옥새 포기를 전혀 다른 층위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구가 거시적 차원에 집중된 것은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나치게 거시적인 관점에만 집중함으로써 인물들의 동기와 상호적 관계, 다양한 군상들의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는 원점으로 돌아가 장백이라는 인물이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그를 분석하여 행위를 추동하는 핵심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적 결말 또한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장백이 맺은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천자되기와 가족 회복의 서사를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장백전>은 이본에 따라 장백의 혼인 삽화 등 관계양상의 편차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크게 누이와의 재회 이전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활자본 계열과 그렇지 않은 경판본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혼인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서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경판 28장본에 국한하겠다.<sup>9)</sup>

7) 심재숙, 『<장백전>과 연의소설 <당진연의>의 관계를 통해서 본 영웅소설 형성의 한 양상』, 『어문논집』 32, 민족어문학회, 1993.

8) 최근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천명과 인간적 욕망의 대립구도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이전 연구들과 유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정인혁은 천명에 가려진 인간적 면모를 조명했다. (정인혁(2010), 앞의 논문) 노영운은 변화하는 지위와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살폈다. (노영운, 『<장백전>에 나타난 영웅적 인물들의 지위 획득 과정과 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9) 누이와의 재회 이전에 잇달아 혼인하는 이본의 경우 장소저가 자결하려다가 장백과

## 2.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장백의 정체성

장백은 적당한 천계의 존재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대권(大權)에 도전한다. 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그의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백이 주변 인물들과 맺는 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혈연 가족, 부자관계를 맺은 도사, 창업 조력자들과의 관계 양상을 통해 장백이라는 인물에 다가가고자 한다.

### 1) 혈연 가족과의 분리를 통해 본 장백의 관계 지향성

출생으로 맺어지는 혈연관계는 생득권(生得權)과 같은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 관계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정해지는 한편 무목적성 유대감으로 묶이기 때문이다.<sup>11)</sup> 장백은 장충부부의 만득자(晩得子)로 안정적인 초기관계를 경험한다. 하지만 잇달아 부모를 잃으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부유했던 장백의 집안은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고 노복마저 떠나면서 두 남매는 경제적 빈곤에 내몰린다. 누이와도 이별하게 된 장백은 심각한 내적 위기에 직면하는데 그것이 삶을 포기하려는 선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족이 장백에게 지닌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12)</sup>

---

재회한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장백의 내적 공백이 적었기 때문에 옥새를 포기하는데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극적 장면 제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본계열에 대해서는 최명자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최명자, 「<장백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0) 노영윤은 타인에게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주원장과 달리 장백이 주변 인물들로부터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밝혔다. (노영윤(2017), 앞의 논문)

11) 가문 내에서의 권력관계와 입지확보를 위한 투쟁의 장이 펼쳐지는 국문장편소설에서는 혈연관계 안에서도 치열한 갈등이 빚어진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존재로의 각성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논하는 무목적성 유대감을 지닌 혈연관계의 특성과는 구분된다.

장백은 누이가 익사(溺死)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자결을 결심한다.<sup>13)</sup> 그런데 그는 7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모친과 누이를 보호하며 장례를 주도할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sup>14)</sup> 물론 어린 나이에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채 홀로 남겨지는 것은 절망적 상황이다. 하지만 장백의 입장에서 누이의 존재는 당장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누이의 죽음을 듣고 ‘죽으미 종스의 대죄를 면치 못하믄’ 알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긴 것은 빈곤으로 인한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에서 살펴야한다.<sup>15)</sup>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부친 상에는 모친과 누이를, 모친마저 잃었을 때는 돌보고 의지가 되어야 할 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는 이상 삶의 의미나 존재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서도

12) 노영윤은 장백의 자살시도에 대해 가문에 귀속된 유일한 혈연관계인 누이를 따라 죽는 것을 홀로 남은 동생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노영윤(2017), 앞의 논문, 61쪽) 하지만 홀로 남은 동생의 역할이 자결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13) “당백이 죽음을 드리고 외가로 가다가 중노의셔 도적을 만나 죽음을 날코 홀노 짐으로 츠즈오니 누를 의지하리오…(중략)…우리 남뎨 부모를 여회고 서로 의지하여 요 형 도오미 이실진디 영화로이 종스를 밧들고져 하엿더니…(중략)…나도 마즈 죽으미 종스의 대죄를 면치 못하나 그러나 스라옥되미 죽는이만 갖지 못하다 하고 김흔 산중으로 드러가 놓흔 남게 올라 썩러져 죽으려호고 점점드러가더니 큰 버드남기 잇거늘 그 남게 올라가 일성통곡의 손을 노코 썩러지니 그 놓기 슈십장이나 되는지라.” <장백전>, 12~13면.

14) 고전소설에서 조숙한 주인공의 모습은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백이 누이의 죽음을 듣자마자 자결을 실행하는 것은 더욱 의문스럽다.

15) 김경숙은 “경제적 몰락과 누이와의 이별로 인해 장백이 개아적 차원에서 잃었던 지위를 회복하고 누이와 만나야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누이 자결 소식을 들은 후 죽음을 결심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김경숙(1992), 앞의 논문, 4쪽) 하지만 누이를 잃기 전 이미 경제적으로 몰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슬퍼할 뿐 삶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로 의지하던 누이마저 떠난 순간 장백은 이 세상에서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다.<sup>16)</sup> 그의 자살 시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 없어지자 내린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주요 인물의 자결시도는 고전소설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확인된다. 동일한 영웅소설군인 <유충렬전>에도 유충렬과 그의 부친, 천자가 자결을 결심하거나 시도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특히 유충렬의 경우 유리결석하던 중 부친의 유언으로 추정되는 글귀를 본 직후 자결을 결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절망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장백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sup>17)</sup> 한편 부친의 존재는 무너진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죽음에 대한 절망감은 가족의 상실인 동시에 현실적인 희망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하지만 장소저의 죽음은 온전하게 유대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의미만을 지니기에 장백의 내적 위기는 유충렬의 그것과 상이하다.

인간에게 유대감과 소속에 대한 욕구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삶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장면은 그의 두드러진 관계 지향적 성향으로 독해할 수 있다. 결핍을 내재한 장백이 누이와 재회한 직후 옥새를 포기하는 서사는 그의 초기 관계 경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한다.

16) 주재우는 빅터 프랭클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이 삶을 지속하거나 종결하는 결정에 ‘자유의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 삶의 의미’가 핵심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결을 결심하기 직전 장백은 삶의 의미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모두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주재우, 『한국 고전 소설에 나타난 삶의 의미 탐구 : 자살 시도와 극복 기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219쪽)

17) 유충렬은 강승상이 ‘부모의 종사를 이어야한다’고 설득하자 마음을 돌린다. 이에 반해 장백은 자신의 죽음에 종사의 대죄를 면치 못함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하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 혈연 가족의 대체물로서 성립된 유사 가족관계

혈연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위기를 경험한 장백과 장소저는 각각 도사와 이승상 부인을 만남으로써 고통을 유예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사에 대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자<sup>18)</sup>, 창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스스로를 국가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조력자<sup>19)</sup>로 논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장백이 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각과 정체성을 형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의 관계에는 인위적으로 맺어진 부자관계(父子關係)이자 사제지간(師弟之間)이라는 두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sup>20)</sup> 문면에는 10여 년 동안의 수학과정(修學過程)이 축약되어 있어 장백과 도사 부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첫 만남과 이별 장면을 통해 장백이 도사와의 부자/사제관계에서 어느 측면에 더 많은 의미를 두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도사는 첫 대면에서 이 관계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 그로 인한 결과를 “이제 날과 흥가지로 이시면 즈연이 지조를 비호리니 오리지 아니흐여 일흠이 스희의 진동혈지라. 엇지 즐겁지 아니흐리오.”<sup>21)</sup>라는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장백은 혈혈무의(父子無依)한 자신을 거두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할 뿐 이름을 떨친다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고독한 처지를 비판해 자살하려했던 소년에게 명예나 부귀영화에 대한 약속은

18) 정인혁(2010), 앞의 논문, 184쪽.

19) 정상진은 장백이 원에 대한 복수의식이나 새 왕조 창업, 사회 개혁 의지가 부재한 상태로 창업의 일익을 담당하라는 첩관도사의 말에 따라 투쟁에 동참했다고 보았다. (정상진(1994), 앞의 논문, 84~86쪽) 하지만 ‘도사의 지시로 인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국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여 이정, 백운단 삼형제와의 만남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고 보는 필자와는 차이가 있다.

20) “부인을 청혀여 서로 보게호고 부즈지의를 미즈”<장백전>, 14~15면.

21) <장백전>, 14면.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장백과 철관도사가 어긋나는 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도사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관계가 종결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sup>22)</sup> 그는 중원이 어지러워진 현 상황, 황제가 될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며 공을 세울 장백의 역할, 그 결과 얻게 될 보상으로서의 명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장백은 이별에 대한 슬픈 정회(情懷)를 내비칠 뿐이다. 관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의 감정적 반응은 그가 도사와의 관계를 혈연 가족의 대체물로 받아들였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부자이자 사제라는 이중적 관계에 대해 장백은 전자에, 도사는 후자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도사의 지시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백이 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장백은 10여 년간 수학하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상이나 백성들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 이정, 백운단 삼형제와의 만남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음으로 장백과 도사의 어긋나는 지점들로 인해 내적 결핍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사는 성인이 된 장백에게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으니 기탄할 일이 없어 즐거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작품 중후반부 장백은 대원수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여전

22) “이제 건장한 어른이 되고 문무겸전현 가운데 웅지대략과 검술이 신기호미 기탄할 일이 없게 되어서니 엇지 즐겁지 아니하리오. 이제 중원이 노란하여 원황제 운슈 진하고 대명이 중홍홀 썩라. 네 씨를 만나시니 세상의 나가 황제될 스름을 츠즈 충성을 다하여 공업을 세워 일홈이 기린각의 오르리니 엇지 오리 산중의 못쳐 운슈를 찾지 아니하리오…(중략)…당성이 마지 못하여 지비 허즉왈 대인의 티산갖흔 은덕으로 비 혼일이 만삼고 가르치시미 이갓스오니 망극흔 은 대은을 엇지 갑스오리닛가. 그러나 존문을 썩나오미 심회 창연흔물 억제치 못하리오소이다.” <장백전>, 15면.

히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번뇌한다. 도사의 발화는 역설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장백의 공허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백전>은 장백과 장소저의 상황을 교차 서술하면서 이들의 상호적 그리움과 비애를 반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비록 안정적 양육환경을 확보하였지만 정서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안락한 생활 속에서도 동생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장소저와 전쟁에서 승기(勝機)를 잡고도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한 심정에 사로잡힌 장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재회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이 드러난다. 도사와의 불완전한 유사 가족 관계와 감정적 유대감의 축소는 차후 장백에게 누이와의 재회가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서사에 개연성을 더해준다. 한편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장백의 내적 위기는 도사와의 이별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제 장백은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 3) 사회적 역할 수용과 새로운 정체성 확립

장백은 고독하고 삶의 방향성이 없던 개인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타인과 유대감을 쌓고 관계를 주도하는 지도자, 집단적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로의 변화를 경험한다. 도사와의 관계가 출발점에서부터 일방적 기대로 어긋났던 것과 달리 동지이자 부하인 이정과 백운단 삼형제와의 관계는 상호적 영향관계 속에서 지향점을 공유한다.<sup>23)</sup>

이정과의 만남은 목표를 공유하는 타인과 ‘우리’로 지칭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당시 장백의 사회적 정체성은 누

23) 본고는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갔다고 본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영웅으로서 이름을 남긴다는 초기의 목표가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장백뿐만 아니라 이정 또한 변화를 보인다.

이와 이별하고 비탄에 빠졌던 어린 시절에 머물러있었다. 그러한 그에게 이정은 ‘도탄(塗炭)에 든 백성을 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자’는 공동의 목표와 지도자로서의 장백의 역할을 제안한다.<sup>24)</sup> 그는 이미 도사로부터 동일한 목표와 역할을 부여 받은 바 있지만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기뻐한다.<sup>25)</sup> 이러한 차이는 해당 목표가 장백과 도사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sup>26)</sup> 이에 반해 이정의 제안은 그들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이다. 장백이 강한 관계 지향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반응은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가 제안에 동조한 직후 곧바로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백운단 삼형제와의 만남은 장백이 관계를 주도하는 인물로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정과 마찬가지로 영웅을 기다리던 백운단 삼형제는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과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뜻을 천명하며 함께하자고 제안한다.<sup>27)</sup> 흥미로운 것은 이정의 제안에는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그쳤던 장백이 현 세대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동지를 찾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도원결의(桃園結

24) “장군의 만부부당지용이 이시물 짐작하고 혼가지로 좃츠 성공호오를 원하옵느니 장군은 뜻의 엇더하시니잇고…(중략)…성이 비록 지죄 용열하나 장군의 일비지너를 돕고즈 하나니 늑호신 소견이 엇더하시니잇고.” <장백전>, 16면.

25) “우리 장츠 일흠을 세워 공업을 이올 씨을 만나또다” <장백전>, 17~18면.

26) 진천자를 찾아 공업을 세운다는 목표는 장백 개인에게만 해당될 뿐 도사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미 부자관계를 맺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거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기존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27) “소성이 당원슈 오시를 기다리더니 오날날 만나시니 엇지 훗일이 지시호시미 아니리 잇고. 이제 텃호 요란호여 처처의 영웅이 봉기호니 원나라 기업이 님의 진호미 세상이 밋고이를 당호니 만일 당원슈 아니면 도탄의 든 백성을 건질 슈 업스리니 원컨디 소성등은 장군을 쓰라 혼가지로 일흠을 후세의 유전호미 엇더하시니잇고…(중략)…나도 세상이 요란호를 짐작호나 누설호미업고 동심의 호결을 만나지 못호여더니 운연이 이곳의셔 형을 만나니 맛당이 도원결의를 효축호여 스심을 혼가지로 호리라.” <장백전>, 20~21면.

義)를 맺자고 제안하면서 관계를 정의하는 주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백운단 삼형제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인물로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정과 백운단 삼형제는 장백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이들은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인물들이다. 지도자가 없이는 집단화될 수 없으며 집단이 아니면 능력을 펼칠 수 없기에 자신들을 규합(糾合)할 구심점으로서의 지도자를 원한 것이다. <장백전>은 장백의 행적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있지만 실제 전투장면과 활약상에서는 장백 측의 이정과 백운단 삼형제, 주원장 측의 유기, 유문정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장백 남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를 기다리던 군웅들의 활약상이 교직(交織)되면서 작품의 서사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이제 스스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장백은 증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삼천여명의 추종자를 얻을 정도로 세력을 불려나간다. 그런 그에게 첫 전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연주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장백은 대원수라는 지위를 획득하며 이정, 백운단 삼형제는 장수로서 그를 보좌한다. 그런데 성공적인 전투 이후 장백군은 스스로를 ‘천명을 받들어 일으킨 의병’이라고 칭하기 시작한다.<sup>29)</sup> 이를 통해 실제 천명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

28) 이들은 백성이 도탄에 든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명예를 얻고자 하는 동기를 반복해서 천명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민중 구원과 혁명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본고는 전자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이인(異人)으로서의 정체성과 강한 명예 지향에도 주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9) 화주성 공격 당시 이정의 아장인 황문홍은 태수를 꾸짖으며 ‘우리 당원수 천명을 받드러 의병을 일으키니’라고 말한다.(〈장백전〉, 25면) 이연홍의 공격 시에는 장백이 직접 천시(天時)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의병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한다.(〈장백전〉, 27면) 장백군이 천명을 일컫는 장면은 총 4번에 걸쳐 등장하는데 모두 연주성을 함락한 이후이다.

간이 행위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번 그러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역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장백 스스로는 물론 이정을 비롯한 제장군졸들이 ‘천명을 받은 의병’이라는 집단적 상(像)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행보에 동기부여가 되는 한편 밖으로 정당성을 설파하고 안으로는 결속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장백이 새로운 만남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집단의 일원이자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과정과 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살폈다. 그가 창업을 추구하게 된 것은 분명 이정, 백운단 삼형제 등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정체성이 부재했던 장백이 백성을 구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목표를 내면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가운데도 장백의 내면에는 여전히 결핍과 번뇌가 잠재되어 있다. 그의 사회적 정체성은 고단한 인간으로서의 과거와 완전히 괴리된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장백이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전 단계의 결핍이 해소되어야 한다.<sup>31)</sup>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취와 가족의 회복에 대한 욕구는 장백에게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한편 <장백전>의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두 축을 중심으로 그 기저를 살핍으로써 장백의 행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30) 이정과 백운단 삼형제의 눈에 장백은 가족과 유리(遊離)된 고단한 인간이 아니라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을 갖춘 영웅으로만 비춰진다. 장백 또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지이자 지도자로서 응답한다.

31)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인간 본성으로 개인 내부의 일치성과 온전성, 통합성을 증진하고 분열이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꼽았다. (Charles S. Carver 외, 김교현 역, 『성격심리학 : 성격에 대한 관점』, 학지사, 2012, 427~428쪽 참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장백의 자기실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 3. 장백의 자기실현과 온전한 자기 완성

장백은 가족과의 분리 직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만 타인의 기대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그런데 장백이 보이는 상이한 지향들은 <장백전>을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분명 천자되기와 가족 회복은 서로 무관하며 때로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장백이 관계 지향적인 인물이라는 점과 삶의 목표와 방향, 정체성을 관계 속에서 찾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작품의 중후반부 서사를 추동하는 장백의 두 지향인 천자되기와 가족관계의 회복은 관계 지향적 인물이라는 그의 특성을 전제로 조망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장백의 삶을 노정하는 두 목표를 자기실현<sup>32)</sup>이라는 측면에서 살핍으로써 문제적 결말에 다가가고자 한다.

#### 1) 천자 지위 획득을 통한 '사회적 자기' 실현

한 인간의 정체성은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그렇다면 장백은 어떠한 인물로 보아야하는가? 장백의 천자되기는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천명을 받아 천자위를 노리는 존재라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sup>33)</sup> 장백이 천자위를 꿈꾼 것은 영

32) 여기서 '자기'는 'Self'의 번역어로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자아(ego)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성에 보다 주목한 개념이다. 초기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아(ego)와 자기(self)를 혼용하였으나 점차 개별적 정의가 구축되었다.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을 발전시킨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은 '자기'를 자기감(sense of self)에 대한 경험 또는 주관적 및 상호 관련성의 경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으며 자기됨(selfhood)에 관한 주관적 경험과 자기대상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자기라는 용어는 그것이 정신 구조로 간주되든 주관적 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든 원본능, 자아, 초자아보다는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용어이다.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이재훈 외 역,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374~375쪽 참조) 따라서 장백의 관계지향성에 주목한 본고는 '자기'를 적정한 용어로 채택하였다.

웅적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발판으로 변화를 겪으며 나아간 것이다.

장백은 지도자로서 첫 사회적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모든 관계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점하며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가 처음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한 계기는 이정과의 만남이다. 당시 이정은 아무런 목표가 없었던 장백에게 백성을 구하고 후세에 길이 남을 이름을 얻자고 제안했으며 장백 또한 ‘우리 장차 일홈을 세워 공업을 이룰 썩을 만나소다’라고 응수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성 구제라는 동기와 함께 명예 지향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거병(擧兵) 행위를 민중 구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두 요소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sup>34)</sup> 명예 지향은 장백과 이정, 백운단 삼형제, 유기, 유문정을 비롯한 제장 군졸들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장백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동기로 창업을 추구했다고 하였으나 <장백전>의 창업에 동참하는 여러 인물들은 백성 구제와 명예욕이 혼재된 욕망으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35)</sup> 영웅적

33) 애초에 장백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채 도사를 떠났으며 조력자인 이정 또한 첫 만남에서 진천자 주씨를 찾아 공업을 이루자는 제안을 한 바 있어 후반부의 언행과 배치된다.

34) 물론 장백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식량을 나눠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곧바로 핵심 동기로 해석하면서 그가 민중을 위해서만 의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행위는 작품 곳곳에서 다른 서사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35) 명예욕은 장백, 이정, 백운단 삼형제뿐만 아니라 주원장 측 인물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원장이 유기와 함께 걸인들의 뜻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걸인이었던 유문정은 당당하게 ‘왕후장상 영유종호(王侯將相 寧有種乎)’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뜻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장백 세상의 처허미 일홈을 후세의 유전호미 덧덧호은 일니라. 왕후장상이 영유종회리오.” <장백전>, 34면) 한편 주원장이 장안을 점령한 이후 제장군졸들이 그 앞에 나아가 그동안 그를 따른 이유가 ‘봉작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는 장면도 흥미롭다. 주원장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것은 무도한 원황제를 천명으로 벌하거나 새로운 국가를 세워 백성들을 평안하

지도자로서의 장백의 정체성 또한 백성 구제와 명예욕 실현을 함께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도자로서 장백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작품 속에서 그가 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계기나 전환점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연스럽게 천자위를 꿈꾼 것으로 형상화될 뿐이다. 이를 인물의 구체적인 내면묘사나 개연성을 엄밀히 따지지 않는 영웅소설군의 갈래적 특성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장백이 영웅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고의 지도자인 천자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sup>36)</sup>

그런데 영웅적 지도자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천자위를 향해 전진한 장백의 행위 기저에는 집단적 정체성과 목표의 공유라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천명을 받아 일으킨 의병’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한 이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유대로 묶이게 된다. 공동

---

게 할 목적이 아니라 봉작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는 장수들과 즉위한 즉시 제장군졸들에게 봉작과 상을 내리는 주인공의 모습에는 지엄한 천명에 대한 인식이나 민중을 위한 구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연유 도적 파홀 묘책을 의논하니 제장이 고왈 소장 등이 주장 좃츠 시석을 무릅쓰고 풍진 중 고초를 혀으리지 아니하여 이곳의 드러오른 원쉬 대업을 일운 후 봉작을 바라미러니 니제 원쉬 먼저 장안의 드러오스 발서 덕택이 스방의 밋쳐스며 빅성이 낙업하니 맛당이 황제 위의 나아가스 턴호을 평정케 호소서. 원쉬 올히너겨 대위의 즉하니 이 썩은 무신 추구월 갑즈일니라. 모든 신하 일시의 무릅홀 쏘어 만세를 부르고 국호을 대명이라 호며 연호을 흥무라 호다.’<장백전>, 43면)

- 36) 이러한 변화는 이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방신장(五方神將)으로부터 진천자가 주씨라는 것을 들었던 그가 명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천명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도리어 그들을 꾸짖는다. 이는 장백과의 만남 이후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상호적 영향 속에서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계양짜 동문을 츠즈 걸닌 괴수 주씨을 만나면 창업지공을 일우리니 엇지 아릅답지 아니호리잇고.”<장백전>, 17면; “니정이 분노호여 디즐왈 우리 의병을 일희여 무도호 원제를 향복밧고 옥시를 바드스니 니는 호놀이 주시미어늘 너는 엇던 무리완더 부결업시 턴위를 항거하니 죽기를 지촉거거든 썰니 나와 니 칼을 바드라.”<장백전>, 46면.

의 목표이자 창업이라는 최상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함께하는 이들을 운명공동체로 끈끈하게 이어준다. 천자되기를 목표로 삼는 것은 그를 더 강한 결속의 자장 아래에 놓는다는 점에서 주효했을 것이다. 물론 장백이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명예욕 등 다양한 지향을 고루 갖추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내면화하게 된 출발점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계 속에 묶이고자 했던 장백의 관계 지향성에 있다. 천자가 되기는커녕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현실조차 알지 못했던 그는 주변 인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스스로의 욕망과 삶의 방향을 구축해왔다. 그 결과 안민(安民), 명예 등에 대한 지향이 발생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 장백의 천자되기는 이러한 복합적인 지향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한다.<sup>37)</sup>

## 2) '사회적 자기'의 균열과 불완전성

그렇다면 장백의 새로운 정체성이 완전히 자리 잡아 이전의 것을 대체 하였는가? 통합된 자기상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적 모순 없이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sup>38)</sup> 비록 장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지향을 수용했다라도 그것을 온전히 내면화했다면 그의 행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장백이 여기에서 끊임 없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장백의 영웅적 지도자라는 정

37) 주원장은 천자가 되는 것 자체를 추구할 뿐이며 여기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천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 이에 반해 장백은 복합적 이유로 천자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8) 정신분석학은 물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도 통일된 자기상 혹은 자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일치가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심리학 전반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Charles S. Carver 외(2012), 앞의 책, 440쪽 참조)

체성은 기본적으로 민중을 구제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날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백이 과연 민중을 위한 지도자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종종 등장한다. 장백군은 성을 공격할 때 서슴없이 불을 지르고 병사들을 엄살하는데 일말의 연민을 보이기는커녕 민간의 피해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sup>39)</sup> 표면적으로는 무도한 원 황제를 천명으로 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들이 공격하는 성이 원 조정의 폭정(暴政)에 시달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창업을 위해 세력을 불리는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문제적이다.<sup>40)</sup>

한편 꿈에 나타난 도사가 천명이 장백에게 있지 않음을 일깨우면서 그를 꾸짖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균열이 보인다. 도사는 그의 행위가 불리를 파국에 대해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사회적 해악과 황후가 그의 누이라는 개인적 이유를 들었다.<sup>41)</sup> 그런데 장백은 백성들이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

39) 장백군은 회주성을 공격할 때 불을 질러서 ‘성중이 대란하여 불리 스면의 허여지니 화렴이 충천한 상태로 몰고 간다. 정인혁은 주원장의 군대가 계양성을 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지적하면서 “장백의 군사가 성을 함락하는 것과 주원장의 그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였으나 본고는 장백군 또한 민간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 (정인혁(2010), 앞의 논문, 189쪽)

40) 민중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닌 것은 주원장도 마찬가지이다. 계양성을 공격할 당시 주원장의 군대는 무기를 탈취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민가에 불을 놓기까지 한다. “일변 민가의 불을 노흐며 무슈흔 군기를 니여가지고 성 동문을 나오니” <장백전>, 34면. 애초에 주원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천자위에 오르는 과정을 거치는 인물로 구원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핍된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로 천자위를 지향한 장백이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천자가 되려한 주원장에게서 구원자의 숭고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백성들을 구하고 명예를 얻는다는 복합적인 지향 속에서 천자위를 고려하게 된 장백이 백성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주원장 보다 더욱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1) “너드러 너른 말을 엇지 이젧노. 텃즌은 곳 듀시여늘 네 비록 옥시를 어더시나 몰망이 네게 잇지 아니커늘 공연이 민심만 소동케하니 엇지 희을 면히리오. 흐물며 황후은 너의 누이라. 골육상견흔을 아지 못하니 엇지 혼심치 아니리오.” <장백전>, 50면.

이에 휘말림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와 골육상잔(骨肉相殘) 가운데 전자에  
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만약 그가 민중을 구제하는 지도자이자  
영웅이라는 지고한 가치를 표방한 인물이었다면 자신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 또한 우려스러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백은 죽은 줄 알았던 누이에 대한 생각으로 번뇌할 뿐 민심을  
소동케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장백의 새로운 정체성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는 또 다  
른 증거로 누이에 대한 그의 반응을 들 수 있다. 옥새를 차지한 채 명군과  
대치한 상황은 천하 패권(霸權)에 도전하는 그에게 있어 절대절명의 기  
로에 선 것이다.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그가 누이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한 순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적진을 눈앞  
에 두고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명진(明陣)에서 배설한 잔  
치에 참석한 상황에서 누이와 닮은 황후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sup>42)</sup> 닮은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살벌한 적진의 연회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대업을 꿈꾸는 위치에 올랐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채워  
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장백의 새로운 정체성은 곳곳에서 균열을 일  
으키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강한 관계 지향성을 지닌 인물인 장백이 원초  
적 유대를 상실하고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과정 속에서 타인들과 상  
호작용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나 과거의 자기를 배제함으로써  
통합된 상을 획득하지는 못한 것이다. 장백이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누이와의 재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2) “당벽이 술잔을 뱉다가 눈결의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즈미와 갓흐를 슬허허여 눈물  
을 흘이거날” <장백전>, 54면.

## 3) 가족 관계의 회복을 통한 ‘온전한 자기’ 되기

장백은 천자위를 눈앞에 두고 옥새를 포기한다. 원황제로부터 직접 항복을 받는데 이어 명군과의 전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상황이었지만 누이와의 재회 후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물러나버린 것이다.<sup>43)</sup> 철관도사의 말을 듣고도 자신에게 천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장백은 누이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에 번뇌했다.<sup>44)</sup> 그가 옥새를 포기한 것은 천명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런데 <장백전>은 장백의 누이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장소저의 그리움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up>45)</sup> 장소저가 도적에게 잡혀가던 중 바로 자결하지 않은 것은 살아서 동생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었으며<sup>46)</sup>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생각하고 연연해하는가 하면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장백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을 딸 처럼 아끼는 이승상 부인과 황후의 위로 맞아준 주원장의 존재도 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그들의 삶에 내재된 결핍과 불완전성에 대한 언급은 장

43) 이에 대해 김경숙(앞의 논문, 11쪽)은 혈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인륜을 완전히 하여 천리에 순종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구성을 긴밀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정인혁(앞의 논문, 194쪽)과 노영운(앞의 논문, 72쪽)은 내면에 억눌려있던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표출이라고 하였다.

44) 장백은 도사의 꾸밈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에게 천명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꿈에서 깬 직후에도 유문정을 불러 자신들의 군대를 ‘천명’으로 지칭하면서 분노하는 한편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45) “당소제 일신은 안한하나 당벽을 생각하고 눈물만 흘리더라.”<장백전>, 12면; “일신이 평안하되 다만 당벽만 생각하고 주야 설위하며 밤이면 후원의 올라가 흐늘게 축슈후여 당벽 만나보기를 발원하더니...”<장백전>, 28면; “각설 당소제 니부의 잇서 일신은 안한하나 주야 당벽을 생각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업스미 부인이 티양 위로 후여 세월를 보니더니...”<장백전>, 44면.

46) “찰하리 몸을 맞쳐 세상을 모르고져 하나 동심의 스심을 아지 못하니 요형 화망을 버셔날진디 우리 남미 면목을 드시 만나볼가 후여 이쳐로 헤으리며 눈물만 흘리고 달여가더니”<장백전>, 7~8면.

백과 장소저의 재회 장면에서 감정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옥새 포기에도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장백과 장소저가 서로에게 의미하는 비는 무엇이었는가? 장백과 장소저는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비복마저 모두 떠나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이 남겨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극단적 고독감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강렬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린 시절 함께한 혈연관계는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백과 장소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을 넘어서서 서로의 존재 의미가 강화된 형태로 보아야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과 필요성, 소속감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한 존재의 상실에서 기인한 내적 공허함은 새로운 가족관계나 사회적 성취로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 결핍이었다.<sup>47)</sup>

장백의 사회적 정체성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유리된 채 강제로 사회적 존재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도사와의 유사 가족관계나 영웅적 지도자로서 천자위를 노리는 것은 그의 근원적 공백을 메워주지 못했다. 물론 장소저와의 재회가 다시 한 집에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던 시절로 회귀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각각 황후와 지도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시절처럼 서로에게 온전하게 기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장백과 장소저의 재회는 불완전성을 넘어 완전한 자기를 찾는 존재의 완성으로 보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나 다시 볼 것을 기대하던’ 누이 앞에 천자라는 지위조차 무의미해진다. 천자위를 노린 것 또한 그의

47) “망극한 중 집의 도라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지우금 목숨을 보전하나 밭양 즘미를 생각하면 설위하더니” <장백전>, 54면.

관계 지향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장백의 천자되기와 가족 관계의 회복은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옥새를 포기한 장백의 선택이 사회적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옥망의 좌절이나 패배로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는 누이와의 재회를 통해 비로소 온전하게 통합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혼인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안남왕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갈림길에서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 4. <장백전> 경관 28장본의 주제의식 및 결론

<장백전>은 창업을 목표로 하는 두 영웅의 대결과 화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작품이 역성혁명에 초점을 맞춘 왕조교체서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본고 또한 지금까지 주인공 장백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개인적인 면모를 밝힘으로써 작품의 의미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렇다면 <장백전>은 고독했던 한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이 핵심인가?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굳이 역성혁명을 통한 창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실상 <장백전>의 서사는 난세를 만나 능력을 펼치는 군웅들의 활약과 가족 지향을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기회로 삼아 이름을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과 유대감으로 묶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수용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경쟁적으로 서사

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따라서 창업은 군웅들의 활약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하며<sup>49)</sup> 주인공 장백의 관계 지향적 면모, 상호적 그리움의 강조, 가족의 재회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된다는 결말은 이 작품이 감정적 유대를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면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백전>은 명예와 가족애를 추구하는 여러 군상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sup>50)</sup> 자칫 상충하거나 이 탈할 수 있는 두 축을 놓고 관계 지향성을 지닌 장백을 주인공으로 하여 긴밀하게 엮어나가는데 성공했다. 죽음에 내몰릴 정도로 고독했던 그가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을 통해 천자가 되는 것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난세를 탄 군웅들의 활거(活舉)와 명예 지향에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어 두 원동력이 작품의 줄기를 이루고 있음

48) 선행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놓고 창업은 흥미소에 불과하며 가족의 이별과 재회가 핵심이라는 주장과 민중을 구원하는 혁명적 영웅에 대한 염원 및 빈번한 민란의 사회상을 반영했다는 상이한 관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자는 가족 서사를 담당하는 장백, 장소저 외에 창업 조력자로 등장하는 이정, 백운단 삼형제, 유기, 유문정 등의 활약상이 작품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창업에 초점을 맞춘 후자의 경우 장백의 창업 행위를 애민(愛民)의 발로라고만 해석했기 때문에 민중의 구원자에서 이탈하는 지점들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9) 실제로 장백과 주원장이 각각 창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작 이들보다는 조력자인 이정, 백운단 삼형제, 유기, 유문정 등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50) <장백전>에는 장백과 장소저 이외의 인물들을 통해 가족의 죽음에 대한 감정적 충격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내에서 전투 중 형이나 아우의 죽음을 목격하는 5쌍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위기에 빠진 형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회충과 그의 형 연주자사 회양, 한충철을 잃은 원 대원수 한충국, 유문정의 죽음을 본 유문정과 유방 형제, 백운현을 잃은 백운단과 백운선 형제가 그들이다. 그들의 전투는 각각 원황제나 주원장, 장백 등 지도자를 위한다는 명분에서 개인적 복수로 목적이 옮겨간다. 짧은 분량의 작품에 형제의 죽음을 목도하는 5쌍의 장수가 등장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적 배치가 아닌가 한다.

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가 대상으로 한 경판 28장본<sup>51)</sup>이 <장백전>의 원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초기영웅소설로 지목되고 있는 작품이 사회적 욕망과 인간적 유대감을 긴밀하게 엮어 소설화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후대 영웅소설군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백전>의 소설사적 위치를 재고하게 한다. 그동안 <장백전>은 영웅소설의 사적 흐름 속에서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sup>52)</sup> 영웅소설군의 성격<sup>53)</sup>을 놓고 가족 서사와 국가 서사 가운데 어느 측면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것은 실제로 해당 갈래의 서사를 추동하는 주요한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만 초기영웅소설에 속하는 <장백전>은 타 작품들과 달리 이러한 논란에서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작품의 지향을 사회 문제 해결이나 가족 관계회복 가운데 어느 한 측면에만 치중함으로써 두 축을 함께 녹여낸 성과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군웅들의 활약과 가족애는 <장백전>의 주제의식과 소설적 흥미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천자의 자리에 도전한 두 인물인 장백과 주원장의 대결을 그리고 있지만 서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은 자

51) 엄태웅은 방각본 영웅소설에서 완판본과 경판본이 상이한 지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완판본은 남성 주인공의 영웅서사를, 경판본은 가문서사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본고가 대상으로 한 <장백전>의 경우 경판본과 구활자본, 필사본만이 확인되기 때문에 완판본과 구별되는 경판본의 특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상 검토한 경판 28장본은 엄태웅의 논의에서 밝힌 경판본이 보이는 이념적 지향과 결이 닮아있다.

52) <장백전>계열의 작품은 <유문성전>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영웅소설 작품과의 연관성을 논의하는데 있어 난점이 많았다.

53)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화사연구』 46, 민족문화사학회, 2011, 170~171쪽 참조.

신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 군웅들의 활약과 유대감으로 묶이기를 원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있다. 상이한 두 지향을 장백이라는 인물을 통해 엮어낸 것이 이 작품의 묘미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장백전 권지단> 경관 28장본, 대영박물관 소장, 김민중 외, 『한국방각본소설전집』, 이텍스트코리아, 753~767쪽.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499쪽.
-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이재훈 외 역, 『정신분석 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606쪽.
- Charles S. Carver 외, 김교현 역, 『성격심리학 : 성격에 대한 관점』, 학지사, 2012, 1~670쪽.
- 김경숙, 「장백전 연구」, 『목원어문학』 11,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92, 49~76쪽.
- 김대근, 「초기 창작 영웅소설의 형성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90쪽.
- 김용기, 「<장백전>에 나타난 천관념 고찰」, 『어문논집』 33, 중앙어문학회, 2005, 51~81쪽.
-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화사연구』 46, 민족문화사학회, 2011, 168~195쪽.
- 노영윤, 「<장백전>에 나타난 영웅적 인물들의 지위 획득 과정과 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71~99쪽.
- 심재숙, 「<장백전>과 연의소설 <당진연의>의 관계를 통해서 본 영웅소설 형성의 한 양상」, 『어문논집』 32, 민족어문학회, 1993, 261~284쪽.
-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62쪽.
- 윤보운, 「고전소설에 나타난 영웅인물의 유형과 형상화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20쪽.
- 임성래, 「영웅소설과 사회 : <장백전>을 중심으로」, 『원우론집』 12, 연세대학교, 1984, 1~20쪽.
- 정상진, 「<장백전>과 <유문성전>의 구조와 두 가지 문제」, 『牛岩斯黎』 4,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79~107쪽.
- 정인혁, 「월령적 사유와 <장백전>의 의미」,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10, 171~201쪽.

주수민, 「〈장백전〉의 형성동인과 주제의식」, 『어문연구』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07~231쪽.

주재우, 「한국 고전 소설에 나타난 삶의 의미 탐구: 자살 시도와 극복 기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217~239쪽.

최명자, 「〈장백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67쪽.

ABSTRACT

On the study of <Jang Baek Jeon>  
by Relationship Orientation of Jang Baek  
—Focusing on Kyung-Pan 28pages Edition

Hwang, Ji-hyun

One of the early hero novels, <Jang Baek Jeon> is a work of which its main character challenges for the emperor but fails it on the period of the late Yuan and early Ming Dynasty. This study's main idea is Jang Baek's strong relationship orientation. He experiences internal crises after the separation from his family, forming his identity with ascetic and assistants. But he still shows deviation from his social identity. To him, it does not contradict self-realization by getting emperor's position and reunion of family. <Jang Baek Jeon> has two axes which are the heroism in the middle of the turbulent age, and family orientation. On the two axes, it is the achievement of this work interweaving desire of fame and family affection closely by Jang Baek who has strong relationship orientation.

**Key Words** <Jang Baek Jeon>, Hero novel, relationship orientation, self-image

논문투고일 : 2019.10.07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